

# 휘발유 '2000원 시대'...휴전에도 기름값 뚝다

### 광주 내 주유소, 1700원대 전멸...1800원대도 극소수 호르무즈 일시 개방에도 유가 반영 '3개월 시차' 전망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당 2000원에 바짝 다가서며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 유가 하락 요인이 일부 발생했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구조상, 이미 형성된 상승분이 먼저 반영되며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지역 평균 10당 휘발유 가격은 1961원, 경유 1924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각각 9원, 10원 상승한 것으로, 하루 사이 두 자릿수 인상을 보여며 상승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가격 분포를 보면 체감 상승 폭은 더욱 크다. 광주 전역에서 1700원대 주유소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1800원대 역시 일부 외곽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

도심권 주유소 상당수는 1900원대 후반에 진입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2000원 시대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광주 북구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승운씨(38)는 "며칠 사이 가격이 눈에 띄게 올라 이제는 주유할 때마다 부담이 확 느껴진다"며 "사실상 2000원이라고 봐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출퇴근 차량 이용이 많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운송업 종사자들까지 연료비 상승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운행량이 많은 영업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것이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됐고, 이는 글로벌 유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8일 양국이 휴전 국면에 들어서고,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국내 가격 하락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개월가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당 2000원에 육박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최근 나타난 긴장 완화나 해협 개방은 분명 하방 요인이지만, 이미 상승한 국제 가격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변수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해당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로, 통제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하는 민감한 지역이다. 이번 개방이 일시적 조치에 그칠 경우 언제든지 공급 불안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히 높

은 상황이다. 여기에 환율 상승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원유 수입은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국내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최근 환율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 외에도 복합적인 상승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 지역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라면 리터당 2000원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조

정을 받더라도 국내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시차 반영 구조와 환율 변수까지 겹쳐 가격 하락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최근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내 가격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구조상 당분간은 높은 가격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하락은 최소 몇 주에서 수개월 뒤에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농업용수 확보 선제 대응 농어촌공사, 대책 상시 점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5개월(2025년 11월 1일~2026년 3월 31일) 전국 누적강수량은 130.9mm로 평년(194.5mm)의 67.3% 수준에 그쳤다. 최근 비로 일부 해결 효과가 있었지만, 영농기 물 부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8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지난 6일 기준 85.8%로 평년 대비 107% 수준이다.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양호한 편이지만, 지역별 강수 편차와 기상 변동성을 고려할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전 용수확보 대책 수립 지원 지구'를 기존 62개소(864만 2000t)에서 115개소(1663만 4000t)로 확대했다. 농업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모내기철 이전에 충분한 용수를 확보해 영농기 급수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천수를 저수지와 용수로 끌어올려 비축하는 양수저류 방식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급수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뭄 상황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뭄 상황과 용수 확보 대책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용수 확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

## 중동전쟁 이후 경제전망...지역기업 대응 전략 모색

### 광주경총, 내일 김광석 경제 전문가 초청 금융포럼

광주지역 경제계가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전망과 기업 전략 점검에 나선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0일 오후 2시에 광주호텔에서 제1717회 금융포럼을 열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을 초청해 '중동전쟁 이후 2026년 경제전망,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중동전쟁과 글로벌 경제 파급 영향, 4차 오일쇼크 가능성, 지정학적 분절화 심화, 세계경제 저성장 구조 고착화, 미국 정치 변수와 통화정책

방향, AI 버블 논쟁, 한국경제 구조 진단과 대응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업의 의사결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준다.

김광석 실장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삼성KPM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긴급의 시대', '경제 읽어주는 남자'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경제 전망과 정책 분석을 제시해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수급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 공급망 다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기업은 에너지 비용 시나리오별 손익 점검과 함께 원자재·운송비·환율 변동에 반영한 가격 정책과 재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현재 91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경영·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금융포럼을 통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를 확대해오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중기부-중진공, 외국인 활용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 비자추천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직종 확대와 서류 간소화, 온라인 플랫폼 전환을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8일 '2026년 외국인 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E-7-1 고용추천은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대상 직종이 기존 24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E-7-4 전환추천은 제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10년간 E-9·E-10 비자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한전, '안전 메아리'로 현장 안전체계 전환

#### 협력사 포함 전 공정 안전수칙 구두 확인 의무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회사 중심의 현장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설비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자 간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서류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작업 과정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설비 공사 현장은 감전, 떨어짐,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대표적 작업 환경이다. 특히 작업자 간 의사소통 부족이 사고 원인으로 반복 지적되면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전이 도입한 '안전 메아리'는 작업 책임자와 작업자가 핵심 안전수칙을 구두로 반복 확인하는 방식의 의사소통 체계다. 감전, 접지, 안전고리 체결 등 필수 안전 조치를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실제 작업 단계에서 안전수칙 이행력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 '안전 메아리' 시행 의무화, 안전 중심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전면 재검정, 스마트 안전기기 단계적 도입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력설비 공사의 상당 부분이 협력회사에서 수행되는 구조를 반영해 협력사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전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업체계로 안전수칙을 법령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재편한다. 감전·추락 등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핵심 점검 항목 위주로 재구성하고, 작업 절차별 필수 안전조치를 명문화해 현장 소통을 안전문화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LTE 기반 무전기 등 스마트 안전기기를 시범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안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